금주의 말씀

창39장1절- 6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요셉처럼

사람들은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살고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하며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요셉이 걸어간 인생이 발자취는 눈물과 감동으로 펼쳐지는 한편이 드라마였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요셉이 인간성과 그 신앙, 그리고 요셉이 살아간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첫째, 요셉은 모든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다.(1절)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영적 비밀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는 환경을 부정적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해같이 맑은 날도 있고 어둡고 캄캄한 길도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점보다는 어려움과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좋은 장점을 살려 자기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요셉은 매사에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미워하여 죽이려 하고 끝내는 팔아넘기던 잔인한 형들을,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국땅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신의 장점을 잘 지킨 것이다.

그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성격이 드러난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도 그렇게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막상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기도 했다. 사울왕을 한 번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이나 쫓기는 신세로 살면서 할 수 없어서 이방 땅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왕의 신하가 되어 비굴하게 살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사울왕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다윗은 단점을 보는 눈이 없었다. 단점에는 눈을 감고,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고 살았다.

둘째,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여 주는 사람이었다. (2-3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하고 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였다. 요셉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요셉의 축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함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이다.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번성하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요셉은 종살이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살이 할 때도 형통하게 되었다. 애굽에서도, 타국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형통케 하셨다.

셋째,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다.(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형통케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영을 받는다. 요셉은 애굽사람이라서, 지식이 뛰어나고 재물이 많아서, 인물이 잘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인격자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넷째,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다.(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말씀한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이었다. 종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다. 감옥에 들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끼쳤다. 궁궐에 들어가 바로 왕에게 복을 입혔다. 원수인 형제들에게 복을 입혔으며 아버지에게 복을 입혔고, 백성들에게 복을 입혔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입히는 인생이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포로였는데 총리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왕에게도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훼파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율질과 사람들까지도 붙여주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살아야 한다.

5월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아보는 달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모든 환경에서 부정적 보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96. 복음의 능력(롬 1:16~32)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구원이란 헬라원어는 소테리아입니다. 이 소테리아의 기본적인 사상은 원래 개인적인 육적 재해에서의 해방을 가리켰다.(삿15:18, 삼상11:9) 즉, 민족의 구출 또는 해방의 뜻으로, 가령 애굽에서의 구출(출14:13, 15:2),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사45:17) 등이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롬1:16절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였다. 이 순서는 민족적인 차별의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기리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나서 구원받는 자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기독겨의 구원이란 무엇에서부터의 구원일까? 첫째는 육체적 질고에서의 구원, 곧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둘째는 위험에서의 구원(마8:25, 14:30)이다. 셋째는 곧 패역한 세대에서의 구원(행2:40), 넷째는 잃어버림에서의 구원(마18:11, 눅19:10), 다섯째는 죄에서의 구원(마1:21), 여섯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롬5:9)이며 일곱째는 종말론적 구원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종교전쟁(11)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자선가인 존 템플턴(1912-2008)은 1972년에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제정하고, 1973부터 매년 한 명을 선정하여 템플턴상을 수여한다. 첫 번째 템플턴상 수상자는 테레사 수녀였다.

존 템플턴은, 노벨상이 물리학, 화학, 의학, 경제 등 전문적 학문 분야와 문학과 평화 등 정신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과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반하여,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도 인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서 기여한 사람도 마땅히 명예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존 템플턴은 "정신적인 성취가 물질적인 성취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상금 액수를 항상 노벨상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템플턴상 수상로는 알렉상드르 솔제니친, 빌리그레함, 한경직, CCC 총재 빌브라이트,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갸초 등을 바롯하여, 물리학자, 천문학자, 생물학자, 기독교 철학자, 가톨릭 철학자, 유대교 랍비, 동방정교의 대주교 등 다양하다.

2017년 템플턴상 수상자인 알빈 플랑팅가는 현대 분석철학계에서 '신은 죽었다'는 풍조를 뒤집고, 유신론적 철학을 다시 주류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1978년, 알빈 플란팅가는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윌리엄 알스턴 등과 함께 기독교 철학자 협회(Society of Christian Philosophers)를 창립하였으며, 이 학회는 미국 철학회(APA) 내에서 가장 큰 단일 주제 분과 학회 중 하나다.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God delusion)》 130쪽의 두 번째 각주를 인용해보자.

우리는 오늘날 지나칠 정도로 널리 선전되고 있는 철학자 앤터니 플루의 변절 행위에서 비슷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노년에 일종의 신을 믿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선언했다(그러자 인터넷에 그 말을 퍼뜨리려는 광풍이 일었다). 러셀은 위대한 철학자였다. 러셀은 노벨상을 받았다. 아마 플루는 이른바 귀의로 템플턴상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얻을 듯하다. 그가 그 방향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2006년 '자유와 진리를 위한 존슨 상'을 수락한다는,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내렸을 때였다. 필립 존슨 상의 첫 번째 수상자는 지적 설계를 옹호하는 전략을 수립한 변호사 필립 존슨이었다. 플루는 두 번째 수상자인 셈이다. 상을 수여하는 대학교는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신학교인 BIOLA이다. 플루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닫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위의 글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위대한 철학자 러셀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지 못한) 앤터니 플루가 템플턴상이라도 받아보려고 무신론 측에서 유신론 측으로 변절하였다는 뉘앙스로 인신공격적이며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다.

계속해서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에 앤터니 플루가 필립존슨상 수상을 수락한 것이 그 증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 리처드 도킨스는, 앤터니 플루를 (기독교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다.

위의 글에서 변절이라는 표현은 영어 apostasy로서 배교 또는 배도로도 번역할 수 있는 종교적 용어이다.

학자라면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변증해야 한다. 《들어진 신》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전혀 영국 신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 앤터니 플루 (위키피디아)

▲ 리처드 도킨스(나무위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표어 :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선교하게) 하소서" (딤전4장)

담임 한 상 영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찬양 1:00
· 주일오후 3:00
· 수요방예배 7:30
· 금요기도회 9:00
62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천변길 607(임곡동) 대표전화 : 964-1217 FAX:952-5683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벧엘교회
표어 :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담임 리 종 빈 목사
· 주일오전 1부 7:00 / 2부 9:00 / 3부 11:00 / 4부 오후 1:00
· 수요방예배 1부 오전 10:30 / 2부 오후 7:30
· 불레성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170번길 8(임암동) 대표전화 367-1004 FAX:361-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 성령께서 이끄시는대로 살아가십시오 (일리보서5:16)

담임 임 종 갑 목사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9:30 / 3부 11:3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예배(월~토) 5:00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대길 34(일곡동 46-25) 대표전화 : 062)572-9595 / FAX: 062)57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표어 :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55:7, 에베소서4:31~32)

원로 이 성 수 목사

담임 정 종 근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찬양예배 3:00
· 수 요 방 7:30
5/222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내기길 6 대표전화 : (061)393-4551 FAX: 061)393-4552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표어 : THE 미라클

원로 정 종 돈 목사

담임 이 근 희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1:3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20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대로 1008-3 대표전화 : 062)951-1191, 1291 FAX: 062)955-482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원로 이 정 조 목사

담임 최 정 원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1:00(청년)
· 주일오후 3:00
· 수요방예배 7:30
· 금요철야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00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18(양산동 209-165) 전화 : 062)572-1004, FAX : 062)57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월 광 교 회
표어 : 복음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공동체

담임 김 요 한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30 / 4부 1:30(청년)
· 주 일 밤 7:30
· 수요방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 금요기도회 9:00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양화로 31번길 7(화정동 417) 대표전화: 062)375-0400 FAX: 062)375-8187

대한예수교장로회
세 움 교 회
표어 :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하소서 (사50:5, 롬12:1)

담임 염 규 석 목사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방예배 7:00
· 금요기도회 7:00
· 새벽기도회 5:00
62341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랜로 16 (산정동1062번지) 대표전화 : 062) 954-0091

대한예수교장로회
거 성 교 회
표어 : 다시 복있는 자가 되라(시편1편)
1. 예배의 복 2. 전도의 복
3. 사역의 복 4. 재계의 복

담임 박 혁 성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2:00
· 수요방예배 7:30
· 금요기도회 9:00
· 새벽기도회 5:3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24 대표전화 : 062) 951-9691 FAX : 062) 951-969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표어: 오늘은 광주를! 내일은 세계를! (행1:8)

담임 김 원 복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3부 2:00
· 수요예배 오전 11:00 / 저녁 7:30
623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0번길 22 대표전화 : 062)951-5004, 956-1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입 면 교 회
표어 :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사야55:7, 에베소서4:31~32)

담임 김 영 팔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오후 12:30
· 수요기도회 저녁 7:00
· 새벽기도회 새벽 4:50
57513 전남 곡성군 입면 버들바깃길 21-2 대표전화 : 061) 362-6010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표어 : 은혜위에 은혜의 삶(요1:16)

담임 변 의 석 목사
· 주일낮예배 오전 11:00
· 주일오후예배 오후 2:20
· 수 요 예 배 저녁 8:00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00
· 금요기도회 밤 9시
·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00
·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20
· 청 년 모 임 주일 오후 2:00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로 10-15 (삼각동 814-7) TEL. 062)574-1096, 010-6617-1096

대한예수교장로회
하 남 교 회
표어 : 금년에 우리모두 주의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 냅시다 (마8:3)

담임 임 준 태 목사
· 주일오전 1부 7:30 / 2부 9:30 / 3부 11:10 / 4부 12:50
· 주일오후 2:30
· 수요방예배 7:00
623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76-12 대표전화: 062)951-9999 FAX: 062)952-5304

대한예수교장로회
신 창 교 회
표어 : 모든 죽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28:19-20)

담임 김 승 원 목사
· 주일오전 1부 9: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방예배 7:00
62287 광주 광산구 구촌반촌길 291(산정동) 대표전화 062)953-5374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 광주광명교회 50주년 희년, 주의 은혜의 해

담임 고 석 원 목사
·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수요말씀예배 : 오후 7:00
· 유 · 초등부 : 오후 12:30
· 중 · 고등부 : 오후 12:30
· 청년대학부 :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 매일 5:00
· 금요기도회 : 오후 8:00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43 대표전화: 062)366-3058 , FAX: 062)369-3058

대한예수교장로회
푸 른 솔 교 회
표어 : "힘과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교회(시18:1-2)

담임 김 사 라 목사
· 주일오전 1부 8:00 / 2부 11:00
· 주일오후 1:30
· 수요말씀예배 7:30
· 새벽기도회 5:00
62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 대표전화: 062)953-4620 ·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광 주 교 회
표어 :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교회" (학 2장)

담임 조 규 성 목사
· 주일오전 2부 11:00
· 주일저녁 7:00
· 수요기도회 7:30
· 새벽기도회 5:00
61649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9번길 10 062)365-7004, 070-7572-9092 FAX: 062)365-7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봉황임마누엘교회
표어 :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역 선교사다
담임 백 병 철 목사
· 주일예배 11:00
· 수요기도회 7:00
· 금요기도회 8:00
· 새벽기도회 5:30
나주 봉황면 죽석길 21보건지소(임) bbc-1221@hanmail.net 전화 : 010-6632-1033(백병철 목사)